플로깅 미디어 퍼포먼스 –
쓰레기의 존재론적 전환과 의미의 생성

이영목 (국립경국대학교 대학원 민속학과, 박사과정)

〈목 차〉

Ⅰ. 물질, 미디어, 퍼포먼스의 문제설정
Ⅱ. 쓰레기의 의미들과 플로깅 수행
Ⅲ. 쓰레기의 물질성과 행위성
Ⅳ. 잔여, 물질, 퍼포먼스의 얽힘

국문초록

이 글은 플로깅이라는 환경 실천이 디지털 공간을 부유하며, 미디어 퍼포먼스로 의미화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인 베넷의 물질성과 유시 파리카의 미디어 논의를 따라가며, 쓰레기-물질이 미디어적 환경을 구성하는 물질로 재배치된다는 점에 주목하고, 생산과 소비의 과정을 거친 물질적 잔여물인 쓰레기 혹은 폐기물이 지니는 수동성을 탈피하여, 잔여적 물질이 지니는 능동성을 확인함으로, 플로깅이 인간의 윤리적 실천을 넘어 미디어, 물질, 퍼포먼스의 얽힘 속에서 발생하는 미디어 퍼포먼스로 규정하고, 인간과 비인간 사이를 가로지르며 발산되는 의미를 탐구한다. 그 과정에서 수동적 객체로 존재해온 쓰레기가 지니는 물질성을 (재)번역함으로 비인간 존재들의 역량을 통해 수행되는 퍼포먼스의 의미를 사유하고자 한다.

키워드 : 플로깅, 쓰레기, 미디어 퍼포먼스, 잔여, 제인 베넷, 유시 파리카, 물질성, 횡단성

www.kci.go.kr

ⓒ 2026 이화인문과학원

Ⅰ. 물질, 미디어, 퍼포먼스의 문제설정

종이박스, 캔, 플라스틱, 유리병, 비닐봉지, 고철, 스티로폼, 남은 음식물처럼 쓸모가 있던 것들이 이전의 관계와 단절됨에 따라 '쓰레기'로 그 존재적 의미가 수렴된다. 낡은, 늙은, 오래된, 고장 난, 빛바랜, 허름한, 닳은, 해진, 낙후된, 뒤떨어진, 쓸모없는 그리고 버려진 등 이러한 단어들은 쓰레기를 수식하는 무수한 단어들이자 쓰레기 그 자체의 속성이라 여겨지는 것들이다. 결국 '낡은 -', '오래된 -', '고장 난 -'에서 '-(물질)'은 제 가치를 잃어, 쓸모없는 쓰레기로 수렴되는데, 쓸모 있는 것과 없는 것, 사용할 것과 사용하지 않는 것, 버려지지 않는 것과 버려지는 것, 쓰레기와 쓰레기가 아닌 것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일상적인 삶에서, 쓰레기가 된 것들은 그저 죽을 운명을 기다리는 존재인가? 쓰레기는 자신들의 배치를 바꿀 힘이 하나도 없는 행위자로만 살아가게 되는가? 잔여적인 것으로 남게 된다는 것은 결국 소멸로 귀결되는가?

무엇보다 버려진 물질은 완전한 소멸로 귀결되지 않는다. 플라스틱이 미세플라스틱이 되어 온 세상을 점거한 것처럼, 쓰레기-물질은 해체되고, 분해되어서 다른 곳에 쓰이거나 혹은 스며들기는 해도, 완전한 소멸은 불가능하다. 그저 물질을 버리는 인간의 시야에서 사라지는 것, 비가시화될 뿐이다. 쓰레기로 전환되는 것은 거리의 수거함으로, 재활용장으로 혹은 어느 길바닥에 고착되어 화석화되거나 고정된 위치 없이 어떤 공간들을 부유하면서 자신의 쓸모를 다 한 존재로 여겨진 채 폐기된다. 분명한 것은 쓰레기는 쓰레기로 태어나지 않았다. 그것은 의도적으로 용도가 정해진 혹은 목적이 정해진 것들, 즉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생산되었지만, 다시 인간의 불필요함에 따라 쓰레기로 되는 것이다. 쓰레기로 명명되는 것은 어떤 행위자가 어느 시점에, 어느 공간에서 "필요없음"으로 선고를 내리며 발생한다. 그런 점에서 쓰레기는 재활용 혹은 완전한 폐기 과정을 겪게 되더라도, 쓰레기가 되기 전이라는 과거, 쓰레기라는 현재, 그리고 쓰레기 이후의 미래가 겹쳐 잠재적인 상태로 존재한다. 그리고 그러한 잠

www.kci.go.kr

재성은 다양한 미래를 상상하게 만들 수 있다.

제인 베넷[1]이 버려진 물품, 쓰레기 더미에서 생성되는 물질이 결국 오존층을 파괴할지라도, 그 안에서 새롭게 배치됨에 따라 생성되는 것에 감탄한다. 그는 물질이 가지고 있던 쓸모 혹은 생기가 한 측면에서는 고갈될지라도 다른 측면에서는 새롭게 고찰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버려지고, 쓸모없는 물질에서도 끊임없는 어떤 활동을 지속하기 때문이다.[2]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는 쓰레기 이전의 쓸모를 다할지라도, 언제나 살아있는 행위자로서 상태를 유지한다. 쓰레기라는 존재가 과거, 현재, 미래를 겹쳐있는 존재라면, 언제나 생기있는 행위자라면, 그 자체로 재생의 메타포로 기능할 수 있지 않을까? 쓸모를 다해 버려졌지만, 그것이 끊임없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그 과정은 배치에 따라서 그 역량을 늘 변화시킬 수 있는 물질이자 행위자로 여길 수 있으니 말이다. 쓰레기가 된 물질들이 처하는 조건, 예를 들어, 인간(이 만들어낸 것들)과 그 안에 중첩된 기술-물질과 환경-물질들까지 고려한다면, 쓰레기조차도, 그 물질성이 상당히 능

1) 제인 베넷의 생기적 유물론(vital materialism)은 때로는 신유물론에 속하기도, 신유물론 밖에 위치되기도 하는 조금 특수한 위치성을 지니고 있다. 그 이유는 그 생기적 유물론이 물질의 생기를 강조하는 방식에 있어, 외부의 힘을 물질에 강제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지점, 다르게 말하자면 물질을 생명주의적으로 이해하는 방식, 관념적인 생명주의관, 존재론적 평평함 때문에 정치·경제적 구조 분석을 약화한다는 점 등 철학적 간극으로 인하여, 신유물론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다(몸문화연구소 (2022), 『신유물론: 몸과 물질의 행위성』, 필로소픽, 136~137쪽 참고; 주재형 (2022), 「베넷의 생기 유물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철학논집』, 70, 170~172쪽 참고; 박준영 (2023), 『신유물론, 물질의 존재론과 정치학』, 그린비, 75~79쪽 참고). 한편으로 인간과 비인간의 관계적 얽힘, 사물과 폐기물의 행위성 그리고 감응과 수행의 문제를 포착한다는 점에서는 신유물론의 영역 속에서 논해지기도 한다. 이 글에서는 후자에 방점을 두고자 한다. 전자의 문제들이 분명히 이론적으로 첨예하게 다룬다면 문제적이기도 하나 그의 이론을 신유물론의 중심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위치성을 일부 조정하여 이 글에 녹여내고자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제인 베넷과 그의 이론을 신유물론인지 아닌지 경계를 나눠서 구획하는 것 자체가 이 글에서는 무의미하며, 따로 논하지 않으려고 한다. 물론 생기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지점에 대해서 일부 방어를 한다면, 그것은 결국 강도(intensity)의 문제라 할 수 있는데, 이를 조금 걷어낸다면, 제인 베넷의 물질성에는 물질, 힘, 배치의 관계가 남게 된다. 이를 기반으로, 인간과 비인간의 감응, 물질-행위성, 우연성 등 플로깅과 미디어 퍼포먼스를 분석함에 있어서 오히려 적합하다 판단된다. 즉, 이 글에서 제인 베넷의 특수적인 위치성이 오히려 물질, 감각 그리고 퍼포먼스를 이야기함에 있어서 더욱 특화된 지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2) 제인 베넷 (2021), 『생동하는 물질』, 문성재(역), 현실문화, 46쪽.

www.kci.go.kr

동적인 순간을 잠재하고 있는 물질이라 여길 수 있다. 즉, 소멸의 대상으로 인간의 경계 밖으로 밀려났던 쓰레기의 존재론적 역량을 (재)파악하고, 그들이 지니고 있던 위치를, 배치를 달리함으로 다른 것을 포착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진다.

이 글에서 쓰레기의 의미와 역량에 관한 여러 질문 속에서 쓰레기와 관계하고 있는 수행을 살펴보고자 한다. 플로깅은 조깅과 쓰레기 줍기를 결합한 실천으로, 최근 러닝의 유행과 함께 부상하고 있다. 플로깅 행위 자체는 개인의 윤리적 실천으로 해석하는 되고 있으나, 그것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다양한 디지털 공간을 가로지르며 기록되고, 공유되며 그 영토를 확장하는 점을 고려한다면, 플로깅을 개인의 실천으로만 압축하기엔 다소 해석되지 못한 지점들이 있다. 특히 플로깅은 소셜 미디어를 횡단함으로써, 개인의 감각과 행위가 집합적인 감각과 행위로 변환되고, 그에 따라 어떤 이미지들을 생산해내는 보다 복합적인 행위로 전환된다. 즉, 소셜 미디어와 횡단된 상황 속에서, 플로깅은 단순히 윤리적 행위 혹은 건강한 라이프스타일 차원을 넘어선 수행으로 읽어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플로깅의 수행 혹은 실천을 미디어 퍼포먼스로 바라보고자 한다. 그것은 플로깅이 현실과 디지털을 횡단하며, 의미를 생산하는 퍼포먼스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 글에서 '미디어'에 대한 논의가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미디어는 정보나 의미를 전달하는 수단 혹은 커뮤니케이션을 가능케 하는 기술적 장치로 이해되곤 한다. 예를 들어 우편부터 TV 그리고 컴퓨터까지 미디어가 지니는 방향과는 상관없이 어떤 연결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그런 입장에서 미디어는 인간의 것들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위치되며, 그 의미는 전달과 재현의 차원에서 설명된다.

이와 같은 도구적 혹은 재현적 차원에서 미디어를 이해한다는 것은, 결국 미디어가 작동하는 환경들, 미디어가 지니는 물질적 조건이 무시되며, 그 과정에서 비인간적 행위자에 관한 포착을 불가능하게끔 만든다. 유시 파리카는 이러한 지점을 비판하며, 미디어의 개념을 확장시킨다. 그에게

www.kci.go.kr

미디어는 기술적 장치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성하는 물질과 그 이후에 남겨지는 잔여들까지 포함하는 연속적인 존재양식으로,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넘어, 광물, 쓰레기, 에너지 흐름 혹은 다른 비인간적 물질들과 얽혀있는 네트워크의 일부라고 표현할 수 있다.[3] 다시 말해, 미디어는 어떤 것들을 '전달'하기 이전에 관계와 감각 그리고 실천을 생성해내는 조건이자 물질적 매개라는 것이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미디어는 그것을 매체, 매개 혹은 미디어적 환경으로 번역되거나 의미를 갖는 것에 상관없이, 미디어는 결국 연결, 관계 그리고 횡단성의 의미와 밀접하게 닿아있다.

플로깅은 길 위에 버려진 쓰레기를 제거하는 차원으로 읽어낼 수도 있지만, 파리카의 미디어 논의를 따라가면, 이 쓰레기도 미디어적 환경을 구성하는 물질로 재배치된다. 일상적으로 마주하는 쓰레기들과 같은 폐기물은 생활 쓰레기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과 소비의 과정을 거친 물질적 잔여물이며, 미디어 환경의 일부라는 것이다. 또한 쓰레기로 인해 생성되는 시각적, 후각적 혹은 다른 감각적 자극을 통해 플로깅이 수행된다고 한다면, 파리카의 미디어 논의를 따라가는 것이 풍부한 해석이 가능하다. 그리고 사진이나 영상과 같은 플로깅의 증거들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디지털 공간에 기록되고, 다른 행위자들과 공유하는 계기를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쓰레기가 지니는 행위성을 확인할 수 있기에, 물질적 중요도가 높다고 판단한다. 이처럼 플로깅에서 쓰레기와 같은 물질들은 배경적 행위자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신체를 움직이고 멈추게 하며, 다른 수행을 촉발시키는 계기로 작용한다. 다시 말하면, 쓰레기-미디어는 몸-미디어와 디지털-미디어를 경유하여 다시 몸-미디어로 정동되는 과정을 그려내며, 플로깅은 미디어 환경 속에서 순환하는 물질들과의 접촉 혹은 개입의 과정이라 설명할 수 있다. 또한 그것은 인간과 비인간이 관계하는 지점에서 생성되는 실천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플로깅이 물질적 환경과

3) 유시 파리카 (2026), 『미디어고고학이란 무엇인가?』, 권수진·김고운·박영석·심효원·정인선·정찬철(역), 현실문화, 8~10쪽.

www.kci.go.kr

신체 그리고 여러 장치들이 얽히며 의미망을 갖게 되는 미디어적 실천으로, 이를 '미디어 퍼포먼스'[4]로 설정가능하다.

다르게 말하자면, 플로깅은 디지털 공간에서 재현·확산되는 '디지털 퍼포먼스'[5]로 한정하지 않고, 물질적 환경과 신체들 그리고 기록과 공유의 과정에서 무수히 미디어/매개되는 상황에 주목하여, 미디어 퍼포먼스로 바라보고자 한다.[6] 여기서 디지털 공간을 비롯한 기술적 미디어들은 플로

4) 이 연구에서 퍼포먼스는 연극이나 예술적 공연에 한정되지 않으며, 일상적 행위의 반복과 재구성, 그리고 그 행위가 특정한 맥락에서 드러나고 의미화되는 과정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이는 퍼포먼스를 복원된 행위(restored behavior)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일상적·사회적 실천으로 확장한 리처드 쉐크너의 논의(리차드 쉐크너 (2004), 『퍼포먼스 이론』 1, 이기우(역), 현대미학사)와 퍼포먼스를 일회적으로 소멸하는 사건으로 간주하는 관점을 비판하며 신체와 사물, 기록 및 재연을 통해 지속되고 재출현하는 과정으로 파악한 리베카 슈나이더(Rebecca Schneider)의 논의(리베카 슈나이더 (2026), 『연극 그리고 역사』, 박정만(역), 교유서가; 유시 파리카·리베카 슈나이더 (2026), 『잔여』, 심효원·유지원(역) 커뮤니케이션북스)를 참고하고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미디어 퍼포먼스는 인간을 '호모 퍼포먼스'로 사유하고, 네트워크 사회에서 사람들이 미디어를 매개로,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자신들을 표현하며, 타인과 함께 어떤 문화적 의미를 만들어가는 수행들을 의미한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생산자, 콘텐츠, 관객이 일방향적인 구조를 지녔다면, 미디어 퍼포먼스에서는 생산자도, 관객도 콘텐츠 생성의 참여자로서 살펴보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지닌다(이기중·김명준 (2007), 「'네트워크 사회'의 '미디어 퍼포먼스'(Media Performance)에 관한 소고(小考)」, 『한국방송학보』, 21(6), 367~369쪽). 이 글에서 미디어 퍼포먼스는 앞의 의미와 유시 파리카의 미디어 개념을 전유하여, 조금 더 확장하고자 한다. 미디어는 인간과 비인간의 물질적 네트워크로 확장하는 것인데, 이는 인간 외의 물질적 존재들 예를 들어, 쓰레기, 스마트폰, 알고리즘, 디지털 데이터 등 다양한 비인간 행위자들이 미디어 퍼포먼스의 행위자로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미디어는 단순히 전달 수단이 아니라 수행을 조직하고 확장하는 물질적 환경이자 행위자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 퍼포먼스는 인간과 비인간 혹은 다른 물질들의 간-행(intra-action)적으로 수행되는 행위가 미디어를 통해서 기록·매개·전파되면서 물질의 의미와 행위자들 사이의 관계를 함께 변화시키는 것으로 바라보고자 한다.

5) 디지털 퍼포먼스는 광의적으로 컴퓨터 기술이 콘텐츠, 기술, 미학 또는 전달 방식에서 부수적 역할보다는 '중추적' 역할을 하는 모든 퍼포먼스 작품을 의미한다. 디지털 제작 조정이 가능한 프로젝션을 갖춘 라이브 연극, 무용, 퍼포먼스 아트뿐만 아니라 로봇·가상현실 퍼포먼스, 컴퓨터 감지/활성 장비 또는 텔레마틱 기법을 사용한 설치물·공연작품, 사이버 연극 이벤트 등을 포함하여 컴퓨터 스크린으로 평가되는 퍼포먼스 작품과 행위를 디지털 퍼포먼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스티브 딕슨 (2022), 디지털 퍼포먼스』, 주경란·강미정·주경미·심하경·신원정(역), 칼라박스, 2022, 11쪽 참고).

6) 이 글에서 플로깅은 디지털 퍼포먼스로 표현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을 가능케하는 조건들과 효과들이 디지털 공간 밖에서 이뤄진다는 점이다. 물론 딕슨의 디지털 퍼포먼스에서도 디지털 공간 밖의 장치들이나 상황들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나, 그것이 주목하는 것이 스크린이라는 화면 속에서 펼쳐지는 퍼포먼스라는 점에서과 디지털 퍼포먼스를 논하

www.kci.go.kr

깅의 수행이 재현되고, 그것이 반복되며, 순환을 가능케하는 시공간적으로 중요한 층위로 작동되기는 하나, 그것이 플로깅 수행의 전부를 규정하지는 않는다. 플로깅은 길 위에 있는 쓰레기들과 그것과 접촉하는 사람들, 기록의 장치들, 공유의 공간들 등 (비)인간들의 신체들과 접촉과 배치에 따라 각종 의미를 생성하는 수행적 사건으로 바라보기에, 현실적 차원의 물질들이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 그런 점에서 이 글에서 디지털 퍼포먼스보다 미디어 퍼포먼스가 이 글에 적확하다고 판단한다. 이러한 관점은 플로깅을 인간과 비인간, 현실과 가상(혹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물질의 역량들 그리고 그것들의 재현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발생하는 미디어 퍼포먼스로 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생성되는 의미의 층위를 탐구하고자 한다.[7]

한편, 플로깅 미디어 퍼포먼스를 주목함에 있어 중요한 것은, 쓰레기가 지니는 물질성 혹은 행위성이다. 주지하듯, 쓰레기는 플로깅 수행의 전제조건이자 물질적 조건이다. 여기서 쓰레기는 단순히 제거의 대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과 반응하는 물질로 인간의 수행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자이기 때문에, 플로깅은 쓰레기-물질과 인간-신체가 간-행(intra-action)[8]적으로 만들어낸 퍼포먼스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쓰레기는 결국 수동적인 객체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능동적 영향

는 맥락이, 예술(art)의 영역 속에서 그 미학을 고찰하고 있기에, 이 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플로깅과 그 의미를 분석함에 있어 경향성이 다르다 판단했다. 그렇기 때문에, 파리카의 미디어 미디어 논의를 전유하여, 미디어를 단순히 디지털 플랫폼이 아니라 물질과 에너지 그리고 폐기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물질과 힘이 존재하는 매개로 사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펼쳐지는 퍼포먼스라는 점에 방점을 두고자 한다. 그렇기 때문에 딕슨의 디지털 퍼포먼스는 이 글에서 말하는 미디어 퍼포먼스의 구현방식들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7) 이 연구에 인용·참조된 사례에 관해 일부 설명하자면, 인스타그램에 "플로깅" 혹은 "plogging"이라 검색했을 때, 플랫폼의 검색 알고리즘에 의해 노출·배열된 게시물을 중심으로 탐색했으며, 여러 사례 중에 쓰레기의 물질성과 퍼포먼스적으로 유의미한 사례, 촬영·이미지화·공유 등 쓰레기가 새로운 미디어적 관계에 편입되는 양상을 보여주는 사례를 중심으로 선별했다. 또한 SNS 게시물을 연구 자료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계정 운영자의 개인정보 보호하기 위해 계정 아이디의 일부를 익명화하여 표기하며, 인용된 사진에서 일부 모자이크 처리하였음을 밝힌다.

8) 간-행(intra-action) 개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했다. 박준영 (2021), 「신유물론의 이론적 지형」, 『문화과학』, 107, 문화과학사, 81~84쪽; 박준영 (2023), 『신유물론, 물질성의 존재론과 정치학』, 그린비, 395~397쪽.

www.kci.go.kr

력을 지닌 것, 수행의 역량을 가진 것으로 그 존재성을 가진다. 따라서 이 글은 플로깅을 인간의 윤리적 실천으로 한정하지 않고, 미디어-물질-수행의 얽힘 속에서 발생하는 미디어 퍼포먼스로 분석하고, 그것이 인간과 비인간, 기록과 행위, 현실/오프라인/아날로그와 가상/온라인/디지털 사이를 가로지르며 발산하는 의미를 탐구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사물화된 쓰레기가 지니는 물질성을 고찰함으로, 비인간 존재들의 역량을 통해 수행되는 퍼포먼스에 의미를 생성해보고자 한다.

II. 쓰레기의 의미와 플로깅 수행

플로깅(plogging)은 2016년 스웨덴에서 처음 시작되어, 소셜 미디어를 통해 유럽을 중심으로 빠르게 퍼진 환경운동이다. 스웨덴어로 이삭을 줍는다는 의미의 'plocka upp'과 조깅하다의 'jogga'가 합쳐져서 'plogg'라 부르기 시작했다. 한국에서는 플로깅 혹은 줍깅 혹은 장소에 따라서 비치 코밍(beach combing), 클린 하이킹(clean hiking)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하게 불리기도 한다.[9] 플로깅은 조깅이나 산책을 하며 쓰레기를 줍는 환경보호 활동으로 이해되며, 그 과정에서 스쿼트, 런지 동작을 통해 신체를 단련하는 운동으로 알려져 있다.[10] 그렇기 때문에 플로깅은 플로거들의 건강을 위한 스포츠활동이자 환경정화 활동이 중첩된 수행이다. 플로깅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는 그것을 인간의 의지와 실천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에 초점화되어 있다. 그리고 그것은 쓰레기의 존재론적 위치성과 관련되어 있다.

쓰레기는 인간에게 쓸모를 다 함으로, 그 역량을 잃은 것으로 여겨진다. 쓸모를 다 했다는 것, 쓰레기로 전환된다는 것은 그 생산문화 속에서

9) 윤정희·이근모·임새미 (2022), 「친환경 운동 플로깅: 그린세대 플로깅 참여자들의 참여 동기와 경험의 의미」, 『한국체육학회지』, 61(5), 345쪽.
10) 황승용 (2022), 『지구 닦는 황 대리』, 더숲, 20~21쪽.

www.kci.go.kr

인간과 쓰레기를 계속적으로 분리하고, 어떤 장소에 폐기를 해야할 대상이 됨을 의미하기도 한다.[11]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는 사회적 질서 속에서 빠르게 제거·은폐되며, 인간의 삶으로부터 배제되는 방식으로 관리되어 왔다. 특히 도시 공간의 청결은 쓰레기의 비가시화를 전제로 유지되고 있으며, 폐기물 처리 과정 역시 공간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주변부에 배치되는 것이다.[12] 쓰레기의 비가시화는 계속해서 그 주변부에 있는 존재 혹은 노동까지도 함께 지워버린다. 예를 들어, 쓰레기를 어떤 장소에 버리든 상관없이,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는 삶과의 분리를 전제하고 있으며, 버려진 존재들은 버려진 장소에 박혀 화석화되거나 소각장으로 이동하여 사라지는 과정을 겪는데, 결국 쓰레기가 맞이하는 여러 상황들은 쓰레기의 존재를 지워서 인간의 삶과의 분리를 진행한다. 그리고 쓰레기의 비가시화는 그 주변부까지 잠식하여 그와 관련된 노동을 비롯한 여러 역시 지워낸다. 이처럼 쓰레기의 존재가 지니는 위치성 혹은 현재적 배치로 인하여, 그것의 존재는 늘 부정당하는 의미와 맥락과 항상 관계하고 있다. 그 지점에서 "잔여로 남지 않은 것, 포함과 배제의 경계를 결정하는 것과 늘 관계"[13]한다는 점에 주목한다면, 쓰레기가 위치한 경계에서 그 물질성을 다르게 읽어낼 여지도 함께 동반된다.

주지하듯, 쓰레기의 존재성은 제거되거나 관리의 대상으로 위치되어 있기에, 플로깅에서 쓰레기는 행위자로 인정되지 못하고, 그 수행 역시 인간 주체의 의지에 의해 수행되는 윤리적인 행위로 의미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플로깅의 수행에 존재하는 여러 행위자들의 존재를 무화시키는 효과를 발산한다. 예를 들어 플로깅의 과정 중에 쓰레기들이 어떻게 포착되고, 인간의 신체는 쓰레기를 조우했을 때 어떻게 혹은 왜 변화하는지 그리고 인간을 제외한 다른 행위자들은 그 역량을 어떻게 표출하는지 등 인간을 중심으로 플로깅을 본다면 이와 같은 여러 조건, 과정,

11) 지그문트 바우만 (2008), 『쓰레기가 되는 삶들』, 정일준(역), 새물결, 2008, 59쪽.
12) 김이홍 (2025), 『폐기의 공간사』, 사이트앤페이지, 43~47쪽.
13) 유시 파리카·리베카 슈나이더 (2026), 『잔여』, 심효원·유지원(역) 커뮤니케이션북스, 9쪽.

www.kci.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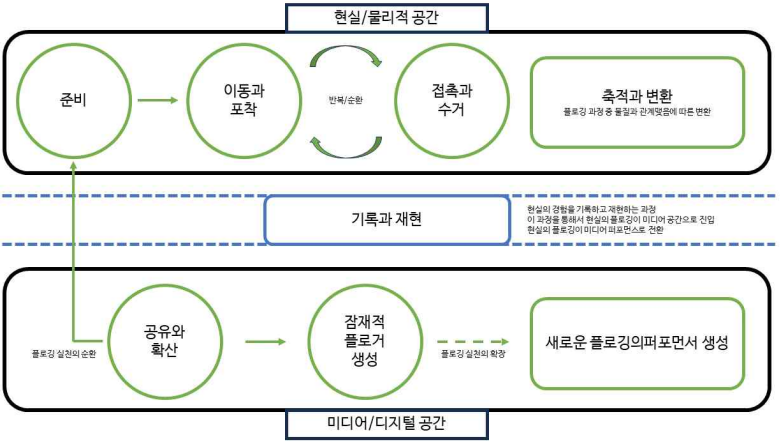
행위자 그리고 상황들이 무시된다. 그렇기 때문에, 플로깅의 과정 자체는 매우 단순할지라도, 플로깅을 쓰레기를 처리하는 행위를 넘어 보다 복합적인 현상으로 의미화됨에 주목하여, 그 안에 얽힌 물질들의 행위성을 읽어내고자 한다. 이는 신유물론적 관점에서 플로깅을 바라보는 시도이기도 하며, 인간과 물질의 관계 혹은 배치에 따라 형성되는 어떤 물질적 실천으로 바라보고자 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과정에서 플로깅의 대상이라 할 수 있는 쓰레기는 폐기물로서 제거되어야 하는 물질로 상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행위 자체에 영향력을 미치는 역량을 가진 물질로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근대적인 사유 속에서 물질은 인간의 통제와 관리의 대상이었다. 쓰레기 역시 인간이 사용한 후 가치를 상실한 잔여 혹은 잉여로 간주되어 왔다. 쓰레기의 탄생은 상품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바우만은 “어떤 것이 창조되려면 다른 어떤 것이 쓰레기가 되어야 한다”[14]고 언급한 바 있다. 즉, 어떤 상품의 탄생은, 상품에 속한 물질과 그 밖의 물질인 잔여로 구분짓고, 상품이 되지 못한 것들은 쓰레기로 전락됨을 이야기한다. 쓰레기장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지니게 된 쓰레기들은 자연스레 삶에서 분리되어 비가시화되며, 그와 결부된 노동들 역시 눈에서 사라진다. 다르게 말하자면, 쓰레기와 쓰레기를 생산하는 근대적 공정으로 인하여, 세계를 식민화했고, 그 과정에서 인간의 쓰레기와 쓰레기가 되어버린 인간의 삶이 창출되었다.[15] 쓰레기가 결국 인간의 삶을 쓰레기화시킬 수 있다는 지점을, 비록 부정적인 지점이지만, 바우만은 쓰레기의 물질성을 일부 포착했다고 보인다. 그러나 쓰레기의 물질성이 바우만이 예견한 방향으로만 진전되는 것은 아니다. 플로깅은 그 반대의 방향성을 지닌 실천으로 이해할 수 있다. 플로깅은 길 위에 무작위로 배치된 쓰레기들이 인간과 관계함에 따라 화석화된 쓰레기를 순환의 과정으로 다시 편입시키는 수행이다. 인간과 쓰레기의 조우 그리고 그들이 관계함으로, 쓰레기의 위

14) 지그문트 바우만 (2008), 50쪽.
15) 브라이언 딜 (2017),『쓰레기』, 한유주(역), 플레이타임, 14쪽.

www.kci.go.kr

치, 존재 그리고 의미가 변환된다. 쓰레기의 물질성과 행위성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플로깅의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도판 1〉 플로깅의 과정

플로깅은 ①준비-②이동과 포착-③접촉과 수거-④축적과 변환-⑤기록과 재현-⑥공유와 확산의 과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①준비에서는 플로깅에 필요한 물품을 준비하는 단계로, 플로깅을 하기 위한 신체와 복장 그리고 용품을 준비한다. 예를 들어, 운동복, 장갑, 집게 그리고 쓰레기를 담을 수 있는 용기(봉투 혹은 가방) 등을 준비하고, 신체를 플로깅이 가능한, 플로깅의 물품들과 연결가능한 상태 준비한다. ②이동과 포착에서는 신체가 걷거나 뛰는 상태를 지속하다가 쓰레기를 시각을 비롯한 신체 감각으로 포착하는 단계이다. ③접촉과 수거에서는 움직이던 신체를 정지시키고, 몸을 움직여 포착된 쓰레기를 집어 용기에 담는다. 그리고 다시 ②단계와 ③단계를 반복한다. 이 반복하는 과정에서 플로거의 신체와 관계하는 쓰레기 물질들이 증가함에 따라 신체가 감당하는 무게가 점차 무거워지며, 그에 따라 신체의 역량이 일부 감소된다. 이를 ④축적과 변환 과정이다. 봉투 혹은 용기에 쓰레기가 모이면서 일종의 재배치의 과정을 겪으며, 물

www.kci.go.kr

질적 변화를 발생시킨다. 플로깅의 시작할 때 비어있던 용기는, 신체와 관계하는 물질이 없던 상태였지만, 플로깅을 수행하면서 그 안에 쓰레기가 하나씩 쌓이고, 신체와 관계하는 물질의 개수, 무게가 계속 증가한다. 이는 플로깅 수행의 난이도를 높이며, 신체의 리듬을 변주시키기도 한다.

플로깅의 과정 사이사이에는 ⑤기록과 재현의 순간이 있다. 이는 쓰레기를 줍는 행위를 기록하는 과정을 말한다. 플로깅 과정 혹은 플로깅 이전과 이후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촬영하여 기록하는데, 이는 플로깅 수행에 대한 일종의 증거를 기록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촬영은 현실에서 수행되는 플로깅의 흐름을 잠시 중단시키면서 진행된다. 달리고 있던 신체가 촬영을 위해서 카메라를 켜고, 각도를 조정하고, 어떤 장면을 연출한 이후,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다. 플로깅은 쓰레기를 줍는 것에서 그 수행이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형태로 만들어내는 것까지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 카메라는 플로깅을 기록하는 도구임과 동시에 어떤 순간을 선택하고 강조하는 시점을 고정시키며, 플로깅의 시간을 동결시켜 저장하는 장치이다. 이렇게 저장된 사진이나 영상은 소셜 미디어와 같은 디지털 공간으로 진입한다. 촬영방식과 시선의 차이에 의해서, 게시된 사진과 영상은 제각기 다른 배치를 가지게 된다. 예를 들면, 쓰레기를 줍는 '인간'에 주목하고 있는지, 쓰레기를 줍는 '상황'에 주목하고 있는지 혹은 '쓰레기' 자체에 주목하는지, 이처럼 플로깅이 어떤 방식으로 기록되고 재현되는가에 따라서 시각적으로 정보가 다르게 생산된다. 이 기록들을 기반으로 디지털 공간에 재현됨에 따라, 플로깅이 미디어 퍼포먼스로 전환된다. 촬영되는 과정에서도, 쓰레기의 형태와 양, 쓰레기의 분포, 플로깅의 경로 등 여러 요소들이 촬영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또한 봉투, 장갑, 집게 그리고 플로깅에 필요한 도구들, 쓰레기를 줍기 위해 몸을 숙이고 일어서고 뛰는 신체의 움직임 역시 플로깅 퍼포먼스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여러 요소들이 사진이나 영상을 담겨, 어떤 이미지를 구축하고, 그것을 어떻게 미디어에 재현되는가에 따라 유사한 수행들도 상이한 의미로 분할된다. 이처럼 기록과 재현의 과정 속에서 현실의 플로깅은 활

www.kci.go.kr

동 공간을 디지털 공간으로 전환시키며, 그 안에서 미디어 퍼포먼스로 전환되어 다른 잠재적 플로거들에게 닿는다.

재현 과정 이후 해시태그를 비롯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는데, 이를 ⑥공유와 확산 단계라 할 수 있다. 이전 단계에서 기록되고 재현된 퍼포먼스들은, 인스타그램과 같은 소셜 미디어에 게시될 때, '#플로깅', '#plogging'를 비롯하여, 플로깅 수행의 공간, 본인이 소속된 단체 혹은 지역 등 플로깅 수행과 관련하여 인접한 의미를 가진 것들로 해시태그들이 텍스트로 게시된다. 여기에는 해시태그 뿐만 아니라 플로깅 수행에 관한 본인의 경험과 감정까지 다양한 순간들을 텍스트로 남긴다. "쓰레기를 주웠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아서 깜짝 놀랐어요"처럼 일상적으로 인지하지 못했던 쓰레기들의 존재들을 플로깅의 과정을 통해서 인식하게 된다. 또한 "시대가 어느 때인데 누가 아직도 바닥에 쓰레기를 버리나!"처럼, 현재의 시대성, 환경적인 태도를 취해야한다는 윤리적인 감성과 더불어, 쓰레기를 버리는 이들에 대한 호통이 담겨지기도 하며, "수거한 쓰레기 무게"를 측정하는 등 버려진 쓰레기의 양이 상당하다는 것과 플로깅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한다. 이 외에도 플로깅 자체에 대한 설명부터, 플로깅 이후의 뿌듯함을 비롯한 다양한 감정을 담아내기도 하고, 다른 이들에게 환경적인 삶을 요구하는 문구 등이 게시된다. 이러한 표현들이 개별적인 경험을 서술하는 측면도 있지만, '#플로깅'으로 다른 게시물들과 연결됨으로, 서술에 있어서도 일정한 패턴을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텍스트는 이미지에 부가되는 설명에 머무르지 않고, 행위를 특정한 형식으로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오늘도'라는 표현은, 앞으로도 반복할 것임을 암시하고, '플로깅 완료'와 같은 표현은 그 수행의 단위를 구획한다고도 볼 수 있다.

이처럼 텍스트는 플로깅 경험을 서술하는 동시에, 그것을 공유 가능한 형태로 정리하고, 유사한 표현들이 반복되는 구조 속에서 하나의 수행 형식을 강화한다. 이미지와 함께 제시된 문장들은 개별적인 기록을 넘어서, 이후의 실천이 참조할 수 있는 서술적 틀로 기능한다. 이처럼, 해시태그

www.kci.go.kr

는 개별적으로 수행되는 플로깅을 다른 플로깅 퍼포먼스들과 연결하며, 일련의 배열을 갖추도록 해준다. 그로 인하여 연결되고 배열된 퍼포먼스들은 개별적 실천을 넘어 다발적인 실천으로 그 영토를 확장시키며, 다른 사람들에게 확산됨에 따라 잠재적 플로거들을 생성시키는 시킨다. 즉, 미디어 퍼포먼스로 전환된 플로깅은 다른 사람들을 플로깅 준비 이전 단계로 끌어들이며 무한한 순환을 가능케한다.

플로깅은 현실에서의 수행으로 시작되지만, 촬영과 게시물로 전환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반복되고 확산되는 메커니즘을 갖추게 된다. 플로깅 수행은 그것이 실재를 재현한 사진이나 영상 혹은 가공된 픽셀 이미지로 고정되어 디지털 공간을 부유하게 되며, 그것이 불특정 다수들에게 전달됨으로, 플로깅이 미디어 퍼포먼스로 의미망을 갖게 된다. 즉, 플로깅이 인간의 주체적 활동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인간과 물질이 함께 관계를 맺음에 따라 형성되는 퍼포먼스라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플로깅을 미디어 퍼포먼스로 이해하고자 한다는 것은, 미디어를 통해 어떤 의미들을 획득하는 과정임을 살펴봄과 동시에 플로깅 퍼포먼스에 배치되는 여러 물질적 요소들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다중적인 성격이 플로깅을 단순한 실천이나 캠페인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대 미디어를 통해 재편되는 독특한 수행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한다.

Ⅲ. 쓰레기의 물질성과 행위성

플로깅 수행에서 주목되는 것은 크게 2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하나는 쓰레기가 지니는 물질성에 대한 포착이고, 다른 하나는 쓰레기가 디지털 공간을 횡단하며, 어떤 배치를 이뤄냄에 따라 그 의미가 다양하게 분할된다는 것이다. 플로깅은 준비, 이동, 포착, 접촉, 수거, 기록, 공유라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신체와 물질 그리고 미디어가 서로 얽히는 수행으로 읽

www.kci.go.kr

어낼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쓰레기가 플로깅의 과정 속에서 무력한 사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수행 자체를 조직하는 물질적 조건으로 부상한다는 것이다. 이는 쓰레기가 "어떠한 배치 내에서 특정한 위치를 점유"[16] 했기 때문에 그 의미가 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쓰레기가 지니는 의미가, 현실적 차원에서 부정적인 의미망을 갖췄다면, 미디어 퍼포먼스로 전환됨에 쓰레기라는 물질이 인간 행위자와 플로깅이라는 수행이 관계함에 따라 '존재론적 전환'[17]이 가능해진다.

주지하듯, 플로깅 수행이 가능하게 위해서는 쓰레기의 존재가 필수적이다. 쓰레기를 줍는 행위가 없다면 플로깅은 러닝 혹은 조깅으로 표현될 뿐이다. 쓰레기의 물질성이 발산됨에 따라, 플로거들은 플로깅 경로에 특정한 방식으로 스스로를 가시화하고 있는 쓰레기와 관계를 맺게 된다. 크기와 형태, 색상, 냄새와 같은 쓰레기들이 자신들을 드러낼 수 있는 방식을 기반으로, 인간의 감각을 자극하여 관계함에 따라 러닝과 조깅이 아니라 플로깅이라는 이름을 획득한다. 쓰레기의 물질성과 인간 신체가 관계를 맺음으로, 그것은 일상적 운동에서 환경운동으로 확장된다.

쓰레기의 물질성은 다른 맥락에서도 관찰가능하다. 이는 특히 플로깅의 경로가 쓰레기에 의해서 조정되는 모습에서 확인가능하다. 플로깅을 이전

16) 제인 베넷 (2021), 51쪽.

17) 이 글에서 플로깅 미디어 퍼포먼스를 통해서 쓰레기가 존재론적 전환을 이뤄낸다고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한편으로는 의미론적 전환이 아닌지 혹은 존재론적 전환을 이뤄내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 수 있다. 물론 의미론적 전환과 존재론적 전환이 이분법적으로 분리되는 것은 아니기에, 어디에 방점을 둘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 이 글에서는 존재론적 전환에 방점을 두고 있음을 분명하게 밝히며, 그에 관하여 짧은 설명을 덧붙이고자 한다. 플로깅을 통한 쓰레기의 존재론적 전환은 크게 두 차원에서 설명될 수 있다. 하나는 쓰레기의 행위성에 주목하는 것으로, 쓰레기라는 물질을 수동적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능동적 행위자로서 바라보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플로깅 미디어 퍼포먼스를 통해서, 쓰레기가 사진 혹은 영상으로 이미지화됨에 따라 디지털 공간에 편입되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다. 이는 쓰레기가 물리적 공간에 놓은 폐기물임과 동시에 이미지와 정보, 미디어적 관계를 구성하는 물질적 대상으로 전환되는데, 이 관점에서 미디어를 비물질적인 정보 전달 체계로 환원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 조건과 환경적 관계를 함께 고찰하는 물질로 전환되기 때문에, 존재론적 전환을 이뤄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쓰레기의 존재론적 전환은 행위성을 가지는 물질로 변환되는 것과 미디어적 관계에 편입되는 변환이 교차하는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www.kci.go.kr

에 수행했던 동일한 경로에서 재수행하거나 계획된 경로에서 수행한다고 해서, 그것이 동일한 미디어 퍼포먼스라 보기는 어렵다. 그것은 경로에 잔여적으로 존재하는 쓰레기들의 많고 적음, 위치, 종류와 무게 등 쓰레기들의 위치성과 물질성에 의해서 그 퍼포먼스를 달리 생산한다. 예를 들어, 짧은 구간에 쓰레기가 많은 경우에는, 거리는 비교적 짧더라도 쓰레기를 줍는 행위는 많이 반복되는 것이고, 긴 구간에 쓰레기가 상대적으로 적다면, 그 행위들이 적게 반복된다. 쓰레기가 예상된 경로에 위치하고 있는지, 그 밖에 있는지에 따라서도 플로깅의 경로가 조정된다. 또한 주운 쓰레기의 무게에 따라서도 경로의 길이가 조정될 여지가 있다. 이처럼 플로깅의 경로가 조정되는 것도 쓰레기의 물질성과 관계하고 있다.

쓰레기의 축적되는 과정을 통해서도 쓰레기의 물질성과 행위성을 읽어낼 수 있다. 봉투에 담긴 쓰레기들은 수행의 조건을 지속적으로 변화시키는 물질이기 때문인데, 예를 들어, 신체와 관계하는 쓰레기의 양이 늘어남에 따라, 플로거들의 신체에 새로운 부담을 가중시킨다. 쓰레기의 냄새로 인한 후각의 자극, 무게에 따라 플로깅의 강도가 높아지는 등 쓰레기에서 발산되는 물질성이 인간의 신체를 교란시킨다. 쓰레기의 이러한 물질적 조건들은 이동속도와 동선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플로거들은 독립적인 이동 주체가 아니라 자신들이 수거한 쓰레기들과 결합된 상태로 전환되는 것이며, 이는 플로깅이 단순히 쓰레기를 제거하는 과정으로 현상되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와 인간이 새로운 물질적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임을 보여준다.

이처럼 쓰레기의 물질성은 감각적 자극과 신체의 움직임을 유도하는 행위적 차원으로 확장된다. 플로깅의 수행 과정에서 플로거들이 그들의 리듬을 불규칙하게 전환하면서, 몸을 숙이고 손을 연장하여 폐기물을 집어올리는 일련의 동작들은 자발적인 선택의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동시에 물질과의 접촉에서 촉발되는 반응이라 볼 수도 있다. 다르게 말하자면, 쓰레기는 인간의 행위를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대상으로 길 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움직임을 요구하고 유도하는 물질로 존재한다는

www.kci.go.kr

것이다. 이런 점에서 플로깅은 인간이 환경을 정화하는 일방적인 실천보다 물질과 인간 신체가 서로 응답하며, 구성되는 수행적 과정이다.

이와 같은 물질적 관계는 현실적 수행 이후 디지털 공간에서도 지속된다. 플로깅의 과정이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되고, 해시태그를 통해 다른 퍼포먼스들과 연결되며, 순환의 굴레에 편입된다. 여기서 쓰레기는 폐기되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수행의 증거이자 성과를 가시화하는 시각적 장치이다. 또한 앞서 설명한 것처럼, 해시태그가 만들어내는 퍼포먼스들의 연결은 쓰레기의 존재를 플로깅 수행의 확산으로 가능하게 하는 매개물로 기능하게 만든다.



〈도판 2〉[18]



〈도판 3〉[19]

미디어 퍼포먼스로 전환되는 과정 중에 쓰레기의 물질성이 상이하게 분할되는 지점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쓰레기의 물질성이 디지털 공간에서 어떤 배치를 이루게 되는지에 따라 그 의미가 전환되는 것인데, 플로깅 미디어 퍼포먼스는 디지털 공간 내의 다른 요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에 따라 환경보호 혹은 신체적 운동 그 이상의 의미들을 담아낸다. 〈도판 2〉와 〈도판 3〉의 경우, 플로깅 중 수거한 쓰레기를 제각기 다른 모습으로 배열한 모습을 볼 수 있다. 〈도판 2〉의 경우 지구의날 54주년을 맞

18) 인스타그램 shay○의 2024년 4월 21일 게시물(2026. 3. 27. 접속).
19) 인스타그램 run○의 2023년 9월 22일 게시물(2026. 3. 27. 접속).

www.kci.go.kr

이하여, 한강 플로깅에 참여했고, 이들이 수거한 쓰레기들을 모아 정크아트를 만들었다고 설명되어 있다. 여기서 수거된 쓰레기들이 쓰레기봉투 안에 고정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시 펼쳐지고 재배열됨에 따라 '지구의 날'을 상징하는 메타포로 의미화된 모습을 볼 수 있다. 〈도판 3〉의 경우도 이와 유사하다. 수거된 쓰레기를 모아 하트 모양을 만들어 포토존으로 활용하고 있다. 여러 쓰레기들이 모여서 그 형태를 달리함에 따라 포토존이라는 공간을 생성하는 물질로 의미화된 것이다. 이처럼 플로깅이라는 환경적 수행에 쓰레기를 기반으로 어떤 상징들을 생산해냄에 따라 플로깅 미디어 퍼포먼스에서 환경적인 의미가 극대화되는 것이다.



〈도판 4〉[20]


〈도판 5〉[21]

플로깅이 기업과 관계될 때, 예를 들어 플로깅 캠페인을 후원하거나 브랜드 마케팅으로 활용되는 경우에 수거된 쓰레기는 환경문제의 상징임과 동시에 기업의 친환경 이미지를 구성하는 자원이 된다. 그 과정에서 참가자들은 특정 브랜드 로고가 새겨진 제품을 착용 혹은 사용하여 플로깅을 수행하고, 그것이 소셜 미디어에 공개될 때, 쓰레기의 의미 역시 기업의 ESG 혹은 친환경적인 정체성을 드러내는 상징적 물질로 변환된다. 이 과

20) 인스타그램 charm○의 2023년 7월 1일 게시물(2026. 5. 31. 접속).
21) 인스타그램 bada○의 2026년 4월 30일 게시물 (2026. 5. 31. 접속).

www.kci.go.kr

정에서 쓰레기는 환경오염의 잔여물에서 브랜드의 가치를 생산하는 물질로 그 의미가 이동한다.

〈도판 4〉은 블랙야크의 '그린야크' 캠페인 사진이다. 블랙야크는 '명산 100 챌린지' 이후 소비자들의 참여형 캠페인을 마케팅의 일환으로 계속해서 펼쳐왔고, 큰 효과를 보았다.[22]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그린 마케팅을 펼쳐왔다.[23] '그린야크' 역시 블랙야크의 그린 마케팅의 일환으로, 플로깅 방식을 차용하여 캠페인을 진행했다. 〈도판 5〉는 유니클로의 플로깅 캠페인이다. 2019년 일본 상품에 대한 불매운동으로 인하여, 유니클로 제품 역시 정치적 소비의 상징으로 기능했던 적이 있으나, 최근에는 그 이미지를 다르게 가져가는 모습을 보인다. 유니클로의 플로깅 캠페인 역시 기업의 친환경성과 사회적 책임을 드러내는 의미를 담아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기업의 플로깅 캠페인에서 등장하는 쓰레기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친환경 정체성을 시각적으로 증명해는 매개체로 재배치된다. 기업들의 현재적인 조건 속에서, 쓰레기와 관계함으로 쓰레기가 지니는 부정적인 의미를 탈각하고, 브랜드 이미지를 재구축할 수 있는 물질로 변환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동일한 쓰레기일지라도 플로깅 수행과 미디어에 재현되는 방식, 그리고 기업이라는 행위자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따라 쓰레기가 환경을 상징하는 물질에서 브랜드의 이미지를 생산하는 물질로 의미가 이동하는 것이다.

22) 김헌준·서영욱 (2025), 「참여형 CSR 활동의 사회적 영향에 관한 연구: 블랙야크 '명산 100' 챌린지 사례 중심으로」, 『기업경영연구』, 33(1), 38~42쪽.
23) 고희경·안동휘·서용구 (2021), 「ESG 환경 경영: 블랙야크 스타일」, 『상품학연구』, 39(3), 한국상품학회, 79쪽.
24) 인스타그램 jo.chang○의 2026년 4월 11일 게시물(2026. 4. 25. 접속).
25) 인스타그램 zzzoo○의 2026년 4월 22일 게시물(2026. 4. 25. 접속).

www.kci.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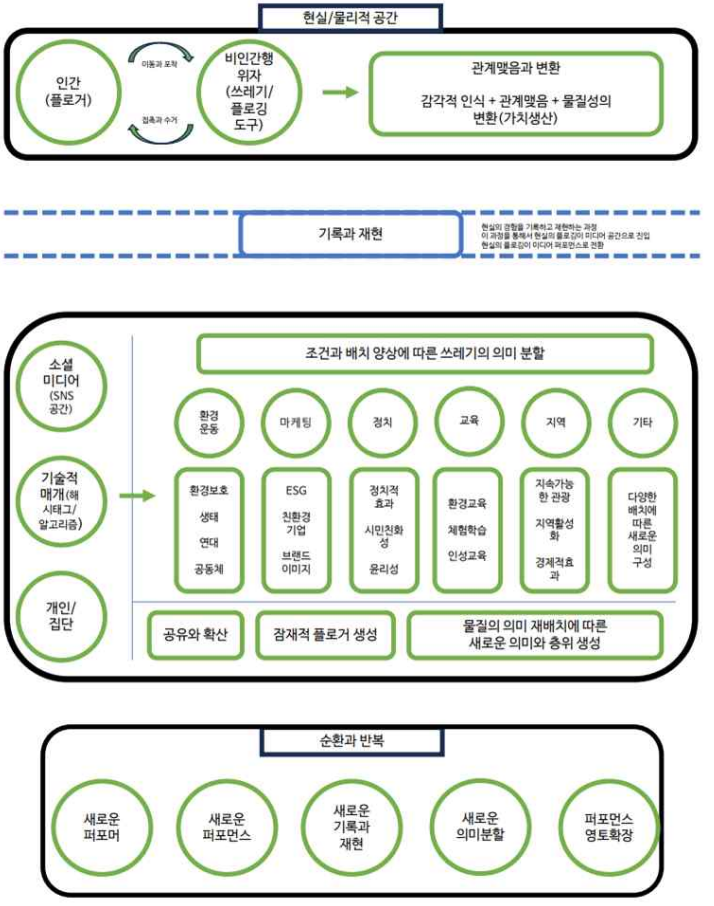
〈도판 6〉[24]



〈도판 7〉[25]

정치적인 맥락에서도 플로깅 퍼포먼스는 어떤 의미들을 생산해낸다. 〈도판 6〉과 〈도판 7〉은 2026지방선거를 앞두고, 플로깅을 하며, 선거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선거 시기 정치인들이 플로깅 행사에 참여하거나 관련 사진을 공개하는 경우, 쓰레기는 환경 문제를 드러내는 물질인 동시에 정치인의 공공성, 도덕성, 시민 친화성을 표현하는 수행적 도구가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치인이 쓰레기를 줍는 행위 자체보다 그 장면이 기록되고 유통되는 과정이다. SNS와 언론을 통해 확산된 이미지는 플로깅을 환경 실천의 장에서 정치적 이미지 생산의 장으로 이동시키며, 쓰레기는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시각적 장치로 재구성된다.

www.kci.go.kr



〈도판 8〉 플로깅의 의미 분할

플로깅 미디어 퍼포먼스를 통한 쓰레기-물질의 의미 분할은 〈도판 8〉로 정리될 수 있다. 이처럼 플로깅이 어떤 조건들 혹은 행위자와 관계하는지에 따라 여러 의미로 굴절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쓰레기가 지닌 의미가 미디어에 재현될 때, 그 방식에 따라 상이하게 분할되는 것이다. 즉, 쓰레기와 인간 신체가 관계하는 과정에서 이질적인 배치가 형성되며,

www.kci.go.kr

쓰레기의 배치가 변환됨에 따라, 그 물질성 역시 다르게 전환되는 것이기도 하다. “이질적인 배치로서 혹은 이질적인 배치 내에서 자신의 권력을 향상”[26]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플로깅의 과정에서 쓰레기의 존재는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데, 이는 쓰레기가 이는 쓰레기가 단순히 비인간 물질 혹은 사물화되어 힘이 없는 존재로 길 위를 부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니는 물질성이 어떤 관계를 통해서 혹은 어떤 배치를 취함으로 역량을 발휘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는 쓰레기가 수동적인 객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 물질로 존재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실천이 언제나 윤리적으로 좋은 효과만 생성하는 것은 아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환경운동적인 사례를 본다면, 플로깅이 미디어 퍼포먼스로서 좋은 효과를 발산하고 있기도 하지만, 플로깅이 정치 혹은 기업과 관계했을 때, 때로는 그것들을 광고하는 도구로 사용되거나, 쓰레기에 관한 근대적 의미를 강화하는 지점도 분명히 있다. 즉, 플로깅 미디어 퍼포먼스를 살펴봄에 있어서 그것이 어떤 행위자, 조건과 관계하고 있는지 그 맥락을 양가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IV. 잔여, 물질, 퍼포먼스의 얽힘

플로깅 현상을 둘러싼 인간, 비인간 물질(쓰레기) 그리고 미디어 물질(기술)의 얽힘은 플로깅이 환경운동의 실천이라는 범주 그 이상의 의미를 담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나는 플로깅 자체가 쓰레기라는 잔여를 수거하는 물질적 실천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플로깅을 기록하고, 공유하며 쓰레기의 새로운 의미를 생산하는 미디어 퍼포먼스라는 것이다. 이는 쓰레기가 플로깅을 통해서 다른 의미를 획득할 수 있는 잠재적이자 현재적인 역량을 지니고 있는 물질이라는 것이기도 하다. 즉, “잔여”는 “수

26) 제인 베넷 (2021), 80쪽.

www.kci.go.kr

동적 상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현실의 생산"의 측면에서 "능동적 관계"로 전환될 수 있음을 상기하게 한다.[27] 따라서 "잔여(들)는 단순히 범주화되는 사물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들과 잠재성들을 소환하는 사건"[28]으로, 쓰레기를 비롯한 그 인접에 있는 존재들, 의미없는 존재로 구획되는 물질들 또한 제 의미를 찾아가는 혹은 다른 의미를 생성해낼 수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이 글에서 미디어 퍼포먼스는 플로깅 자체를 지칭하거나, 플로깅이 특정한 순간에 미디어 퍼포먼스로 전환된다는 의미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플로깅의 물질적 수행이 미디어와 결합하면서 수행의 의미와 범위, 물질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재구성되는 과정에 주목하고 있다. 즉, 플로깅 미디어 퍼포먼스를 쓰레기의 물질성과 위치성이 인간의 신체적 수행에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퍼포먼스를 구성하는 것과 플로깅 행위와 쓰레기가 미디어를 통해 기록·공유되면서 새로운 관계와 의미를 획득하는 두 층위에서 살피고자 했다. 따라서 미디어가 개입하지 않는 플로깅의 모든 사례를 미디어 퍼포먼스라 규정하기는 어렵다. 이 글의 분석 대상이 플로깅 일반이 아니라, 쓰레기-물질을 매개로 이뤄지는 수행이 미디어와 결합되면서 재구성되는 양상이기 때문에, 쓰레기가 인간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적 역량을 드러내는 동시에, 기록과 이미지화를 통해 새로운 미디어적 관계에 편입되는 과정에 방점을 찍고 있다. 이처럼 미디어 퍼포먼스는 이 두 층위가 교차하는 지점을 분석하기 위한 개념이며, 플로깅을 윤리적 실천이나 환경 캠페인으로만 환원하지 않고, 물질, 미디어, 인간의 신체가 서로 관계를 맺으며 수행하는 과정으로 정리할 수 있다.

플로깅 미디어 퍼포먼스처럼, 물질의 의미를 생성하는 혹은 의미를 전환시키는 차원에서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배치를 비틀어야 한다. 배치를 비틀어버리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어떤 수행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수행 혹은 퍼포먼스는 단

27) 유시 파리카·리베카 슈나이더 (2026), 5쪽.
28) 유시 파리카·리베카 슈나이더 (2026), 55쪽.

www.kci.go.kr

일한 한 존재의 움직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존재와의 관계됨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존재는 인간이 되기도 하며, 다른 비인간 신체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시간과 공간이 되기도 한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재번역되는 존재들이 있기 마련이니 말이다. 쓰레기의 경우 그 자체로 의미를 변환시킬 잠재적인 역량이 있는 것은 분명하나, 그 자체로 자신의 의미를 전환시키지는 못한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제외한 어떤 행위자와 관계를 맺어 그 배치를 전환시킴으로 그 존재론적 전환을 가능하게 한다.

플로깅은 실제 자연-문화환경 속에 남겨진 물질적 잔여를 수거하는 행위이면서 동시에 그 과정을 미디어-자연의 세계에 디지털 이미지와 데이터로 전환하는 미디어 실천이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현실의 물질과 미디어 기술의 중첩이기도 하다. 이를 통해, 물질과 미디어가 별개의 영역이 아니라 어떤 순환 과정 속에 있음을 보여준다. 길 위의 쓰레기가 사진과 영상으로 (재)매개되며, 그것이 소셜 미디어 공간을 통해서 다시 사회적 의미를 생산하는 물질-미디어적 존재로 변환된다. 그리고 이러한 퍼포먼스는 일회적인 실천으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형상은 다를지라도 끊임없이 반복된다. 플로깅의 순간이 사진, 영상, 게시물 등으로 반복적으로 재현되기도 하며, 플로깅을 변환시켜 다른 형상으로도 반복될 것이다. 플로깅을 통해서 수거된 쓰레기들은 물질적으로는 현상에서 사라지지만, 픽셀화된 사진과 영상 기록은 계속해서 디지털 공간에 흐르며, 잠재적 플로거를 찾아나선다.

플로깅은 잔여를 제거하는 행위가 아니라 잔여를 새로운 관계망 속으로 이동시키는 퍼포먼스라고 할 수 있다. 쓰레기는 환경오염의 흔적에서 출발하지만 플로깅을 통해 환경 실천의 증거가 되고, 미디어 퍼포먼스가 되며, 때로는 브랜드 가치나 정치적 메시지를 생산하는 매개가 된다. 이러한 과정은 물질이 고정된 의미를 갖지 않으며 다양한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존재를 변환시키는 신유물론적 관점이자 퍼포먼스의 새로운 형태와 관련되어 있다. 동시에 플로깅은 사라짐과 잔존, 물질과 기록, 행위와 재현이 서로

www.kci.go.kr

를 통해 반복되고, 지속되는 퍼포먼스의 과정이기도 하다. 이처럼 플로깅은 잔여의 제거가 아니라 잔여의 (재)배치이며, 물질과 미디어 그리고 퍼포먼스가 얽혀 새로운 영토를 생산해내는 동시대적 실천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러한 잔여적인 것들의 퍼포먼스가 지니는 어떤 가능성을 보았다면, 그것을 더 확장하여 다른 잔여들도 물론 제각기 다른 방식이겠지만, 그들의 물질성을 구사함으로 다른 의미를 획득할 여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쓰레기와 같은 잔여적 물질들이, 기존의 배치를 달리함으로 물질적 존재성을 변환하고, 제 의미 혹은 다른 의미를 획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잔여적인 존재들의 재생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쓰레기뿐만 아니라 어떤 소외된 것들에서도 이와 같은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잔여적 물질이 재생의 메타포로 의미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른 방향으로 확장하자면, 그것은 미디어적 의미를 연장시킬 수 있다. 몸 혹은 미디어의 연장과 관련하여 물질의 횡단(성)을 확장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쓰레기의 그 잠재적 역량을 파악할 때, 그것을 쓰레기로 만든 행위자, 시간, 공간 그리고 다른 상황들이 긴밀하게 관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쓰레기는 버려지기 이전의 (비)인간 신체가 노동해 제조한 물질적 구성 요소에 달라붙어 있는 "정동적 잔류물"[29]로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정동적 잔류물과 그 흐름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겹쳐놓고, 직선적인 시간과 공간을 뒤틀어버리기도 한다. 즉, 잔여(들)의 존재 자체가 그러한 이분법적 틀을 교란하며, 그 이전의 의미를 복권하든 혹은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든 몸 혹은 미디어의 확장적 행위자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29) 정동적 잔류물은 특정한 사건이나 퍼포먼스가 종료된 이후에도, 신체와 사물, 이미지와 환경 사이에 남겨진 감각 혹은 관계 그리고 행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잔여적 효과를 말한다(유시 파리카·리베카 슈나이더 (2026), 106쪽 참고). 길 위에 있는 쓰레기들은, 이전의 사용자들 코드화된 정보들, 예를 들어 지문 혹은 택배 송장에 적힌 개인정보와 같은 것들이 남겨져 있음과 동시에 플로거들이 쓰레기를 수거할 때 생성되는 감정들까지 쓰레기에 과거적인 정보들과 잠재적인 정보들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쓰레기의 시간성을 재고해볼 여지를 보여준다.

www.kci.go.kr

참고문헌

고희경·안동휘·서용구 (2021), 「ESG 환경 경영: 블랙야크 스타일」, 『상품학연구』, 39(3).
김이홍 (2025), 『폐기의 공간사』, 사이트앤페이지.
김헌준·서영욱 (2025), 「참여형 CSR 활동의 사회적 영향에 관한 연구: 블랙야크 '명산 100' 챌린지 사례 중심으로」, 『기업경영연구』, 33(1).
리베카 슈나이더 (2026), 『연극 그리고 역사』, 박정만(역), 교유서가.
리차드 쉐크너 (2004), 『퍼포먼스 이론』 1, 이기우(역), 현대미학사.
몸문화연구소 (2022), 『신유물론: 몸과 물질의 행위성』, 필로소픽.
박준영 (2021), 「신유물론의 이론적 지형」, 『문화과학』, 107.
(2023), 『신유물론, 물질의 존재론과 정치학』, 그린비.
브라이언 딜 (2017), 『쓰레기』, 한유주(역), 플레이타임.
스티브 딕슨 (2022), 『디지털 퍼포먼스』, 주경란·강미정·주경미·심하경·신원정(역), 칼라박스.
유시 파리카 (2026), 『미디어고고학이란 무엇인가?』, 권수진·김고운·박영석·심효원·정인선·정찬철(역), 현실문화.
_____ ·리베카 슈나이더 (2026), 『잔여』, 심효원·유지원(역) 커뮤니케이션북스.
윤정희·이근모·임새미 (2022), 「친환경 운동 플로깅: 그린세대 플로깅 참여자들의 참여 동기와 경험의 의미」, 『한국체육학회지』, 61(5).
이기중·김명준 (2007), 「'네트워크 사회'의 '미디어 퍼포먼스'(Media Performance)에 관한 소고(小考)」, 『한국방송학보』, 21(6).
제인 베넷 (2021), 『생동하는 물질』, 문성재(역), 현실문화.
주재형 (2022), 「베넷의 생기 유물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철학논집』, 70.
지그문트 바우만 (2008), 『쓰레기가 되는 삶들』, 정일준(역), 새물결, 2008.
황승용 (2022), 『지구 닦는 황 대리』, 더숲.

www.kci.go.kr

Abstract

Plogging Media Performance – The Ontological Transformation of Waste and the Generation of Meaning

Lee, youngmok (Gyeongkuk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folklore, PhD student)

This article examines how plogging, an environmental practice, circulates through digital spaces and comes to be signified as a media performance. Drawing on Jane Bennett's account of materiality and Jussi Parikka's discussions of media, it focuses on how trash-material is repositioned as a material constituent of the media environment. By moving beyond the passivity attributed to trash or waste as material remains of processes of production and consumption, this article identifies the agency of remains and conceptualizes plogging as a media performance that emerges from the entanglement of media, matter, and performance, extending beyond human ethical practice. It further explores the meanings that emanate across the human and nonhuman. Through the (re)translation of the materiality of trash, which has traditionally existed as a passive object, this article seeks to rethink the significance of performance enacted through the capacities of nonhuman entities.

Keywords: Plogging, Waste, Media Performance, Remains, Jane Bennett, Jussi Parikka, Materiality, Transversality

논문 투고일: 2026년 09월 02일
심사 완료일: 2026년 10월 09일
게재 확정일: 2026년 10월 15일

www.kci.go.kr